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최현철

전화 02-3219-4420 / 팩스 02-3219-2397

보도자료

2024. 8. 5.(월)

「위믹스(WEMIX) 코인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수사 결과

- 온라인게임 개발회사 및 前 대표이사 기소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위믹스(WEMIX) 코인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수사 결과, '22. 1. 코인 발행사인 A사가 보유하던 위믹스 코인을 시중에 대량 유통하여 위믹스 코인 시세 및 A사 주가가 급락하자, 향후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거짓으로 발표하여 위믹스 코인 시세 및 A사 주가를 관리한 A사 前 대표이사 B 및 A사를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각 불구속 기소하였음
 - A사는 '20. 10. 위믹스 코인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최초 상장한 후 시세가 급등하자, '21년 A사가 보유한 위믹스 코인(약 2,900억원)을 대량 현금화(유동화)하여 다른 게임회사를 인수하는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22. 1. 위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시장과 투자자들의 비난에 직면하고 위믹스 코인 시세 및 A사 주가가 하락하였음
 - 대표이사 B는 위믹스 코인의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발표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위믹스 코인 시세 및 A사 주가 하락방지 등 이익을 취득하였고, A사는 이후에도 위믹스 코인을 펀드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계속 현금화하였음
-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주식 및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상장사인 A사가 발표한 정보를 믿고 투자한 것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음
- 서울남부지검은 앞으로도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자본시장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금융·증권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음

I

피고인

- A사 (온라인게임 개발 및 위믹스 코인 발행업체)
- B (A사 前 대표이사)

II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 B) '22. 1. ~ 2. 위믹스 코인 유통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하여 A사 주가 및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방지 등 액수 미상의 이익 취득 [자본시장법위반]
※ 피고인 B는 A사 최대주주가 지명한 전문경영인으로, ▲대표이사 재신임 문제 (2014년 선임된 후 3년마다 재신임), ▲본인이 보유한 A사 스톡옵션 행사 등을 위해 A사의 주가 및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 (피고인 A사) 대표이사인 B가 위와 같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A사 주식 시세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 사용 [자본시장법위반]

III

수사 경과

- '23. 5. 위믹스 코인 유통화 중단 등 관련 고소장 접수
- '23. 6. ~ 9. A사, 코인 유통사 사무실, 외부감사 회계법인 등 압수수색
- '23. 10. ~ 압수물·계좌 분석 / 위믹스 코인 투자자, A사 직원, B 등 조사

IV

범행 배경 및 내용

① 범행 배경 : 위믹스 코인 시세 및 A사 주가 하락 방지

- A사는 '20. 6. 위믹스 코인을 발행하고 '20. 10.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한 후, '22. 1.까지 지속적으로 위믹스 코인을 유통화하여 약 2,900억 상당의 현금을 마련, 위 자금을 게임회사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회사의 외연을 확장해왔음

- '22. 1. 사전 공시 없이 위믹스 코인을 대량 매각·현금화하여 A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믹스 코인 가격(1.11. 11,405원 → 1.27. 6,874원) 및 A사 주가(1. 11. 149,000원 → 1.27. 126,600원)가 하락하였음

※ A사는 위믹스 코인 발행회사이고 위믹스 코인 발행 이후 블록체인 게임사로 전환하여 A사 주가와 위믹스 코인 가격은 사실상 연동되어 움직임

- 당시 A사의 대표이사이던 B는 시장의 우려와 비판을 잠재우고, 위믹스 코인 시세 및 A사 주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위믹스 코인 유동화 중단' 선언
 - '22. 1. 28. 공식 텔레그램 및 언론을 통해 '위믹스 코인 유동화 잠정적 중단' 공지하고, '22. 2. 9.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는 위믹스 유동화를 중단한 상태이며, 향후 위믹스를 유동화할 경우 자사주 매입 공시처럼 수량, 금액, 기간, 자금 활용 계획까지 공지하겠다"고 언급함

② 범행 내용 : 유동화 중단선언과 달리 계속적 유동화 계획

- 피고인 B는 '위믹스 코인 유동화 중단' 선언과 달리, 기존과 같이 직접적인 위믹스 코인 매도 방식이 아니라 외부에서 파악할 수 없는 은밀한 방식으로 위믹스 코인을 계속적으로 현금화하기로 계획하였고, 실제로 현금화하였음

- ① 위믹스 코인을 펀드에 투자한 후 USDT 등 스테이블코인*으로 회수하는 방식
- ② 스테이블코인을 대출받으며 위믹스 코인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 등을 이용하여 '22. 2. ~ 10.경 약 3,000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추가 현금화하였음

* 스테이블코인 : 달러 등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가상자산으로 1USDT는 1달러와 동일한 가치

- 결국, 피고인 B는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위믹스 코인 시세 및 A사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유동화를 하지 않겠다고 지속적으로 허위 공지하였고, 이에 따라 위믹스 코인 유동화 문제로 인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고 생각한 투자자들을 오인·착각에 빠뜨리고 위믹스 코인 및 A사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도하였음

- 또한, 무계획적인 위믹스 코인 현금화로 인해 위믹스 코인 유통량이 증가하고 A사가 거래소에 제출한 위믹스 코인 계획유통량을 초과하게 되었으며, '22. 12.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초과유통을 이유로 위믹스 코인에 대한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를 결정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함

V

수사의 의의 및 향후 계획

- 투자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된 이래 압수수색, 계좌추적 및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범행의 동기와 실체를 규명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한 가상자산 발행 회사 및 대표이사를 기소하였음
 - 향후 재판 절차에서 피고인들에게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임
 - ※ 다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위믹스 코인 매수대금을 A사나 B가 직접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하였음
- 서울남부지검은 앞으로도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전문수사역량을 발휘하여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음 